



루터의 도시를 가다

16

밀하우젠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역사적인 해이다,
독일에서는 이미 십 년 전부터 기념 행사들을 시행해 왔고,
세계 여러 나라들도 종교개혁을 기념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는 작업을 하고 있다.
세속화가 거센 오늘날, 종교개혁의 슬로건처럼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루터가 걸어간 개혁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며,
기독교, 교회, 신앙인이 먼저 믿음과 생활의 개혁으로 그 본질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루터가 비텐베르크를 중심으로 종교개혁 운동을 확산해가는 동안 독일 사회는 요동치고 있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교회와 예배, 예식에 대한 반성, 교황제도의 비성경적 왜곡을 바로 잡으자 한 점이 중점이었다. 한편 독일 사회는 이와 함께 새로운 변화의 움직임이 싹트고 있었으니 구세대와 신세대의 갈등, 귀족으로 대변

되는 기존세력과 농민, 수공업자, 직조공들로 구성된 신흥 세력의 대립이 그것이었다. 이들 중 종교개혁을 자신들의 권력과 새로운 사회질서를 만들려는 목적으로 활용하려 한 이들이 있었다.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토마스 뮌처(Thomas Muentzer)였다. 뮌처는 1489년 독일 중북부 스톨베르크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라이프치히, 프랑크푸르트 등지에서 공부하고 수도원에서 수학하는 등 신학, 교양수업을 쌓고 목사로 활동하였다. 비텐베르크를 방문하면서 루터의 사상을 접하게 되면서 프로테스탄

트적 신앙의 길로 접어들게 되지만, 루터를 비판하게 된다. 루터가 보이는 행동이 귀족에게 아부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뮌처는 처음부터 기득권 세력에 반항적인 성향을 보였다.

당시 농민들은 전통적으로 귀족 수하에서 피폐한 삶을 살고 있었다. 농민들은 여러 면에서 궁핍한 삶에 시달렸다. 작황은 오랫동안 좋지 않았고, 영주들에게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지 않았다. 누려야 할 권리보다 책무가 늘어나다 보니 사회적 불만이 가중되어갔고, 노동이나 전쟁마다 강제로 끌려다녀야 했다. 농민들은 귀족들에게 자신들의 시민권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비웃음과 탄압뿐이었다. 여기저기서 농민전쟁이 끊이지 않던 시기에 뮌처는 도화선에 불을 붙였다. 그는 자신만의 독특한 길을 걸었다. 성경을 종말론적으로 해석하는가 하면, 기득권층인 귀족을 타도하기 위해 무력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였다. 칼을 이용해 새로운 세상을 일으키려고 하였다. 급진적이며 과격한 뮌처의 이미지는 이렇게 만들어졌다. 신비주의적 체험을 강조하던 뮌처는 농민들이 전쟁을 하는 동안 낮잠을 자기도 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꿈을 통해 계시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뮌처는 자신을 따르던 추종자들을 이끌고 뮐하우젠(Muehlhausen)에서 전투를 벌이다 체포되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뮌처는 동지였던 파이퍼와 함께 1525년 5월 27일 참수되었다.

글 | 추태화 안양대학교 신학대학 기독교문화학과 교수로 문학과 문화 비평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일생의 사명으로 삼고 우리 사회가 건강한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맑고 풍요로워지기를 꿈꾸는 기독교문화운동가이다.